

# 다산 정약용의 『상서』 재해석과 현능론\*

## - 왕도의 사공(事功)과 고적(考績) -

김호\*\*

### 〈차 례〉

- 머리말
- 『상서』에 드러난 요순의 선정
- 구덕(九德), 현능의 조건
- 고적(考績), 요순 정치의 열쇠
- 왕도의 사공(事功), 순과 우의 치수 사업
- 조선의 구폐(舊弊)
- 맺음말

### [국문초록]

『상서』는 요순 선정의 비결을 고스란히 기록한 경전이었다. 다산은 말년에 이르도록 상서 고증을 통해 삼대 이상 정치의 근거를 파악하고자 했다. 다산에게 역사 고증이란 당시 조선의 어지러운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다산은 평생을 바친 상서 연구를 통해, 요순 정치는 현능한 신하를 발굴하여 국정을 운영한 결과 안민(安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능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권한을 준 다음에는 그의 업적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고적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다산이 보기에 요순과 같은 성왕은 현능을 알아보는 지인(知人)의 능력을 갖추었을뿐더러, 현능한 신하를 존중하여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알았다. 특히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후속 조치로서의 상벌은 현능의 사업을 지속가능케 한 중요한 근거였다. 현능한 신하들의 업적은 당연히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안민의 결과를 낳았다. 다산은 조선에도 이러한 왕과 신하의 공치(共治)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신분과 지역에 관계없이 널리 현능한 이들을 발굴해야 함은 물론 수많은 신료들을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대총재[재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요가 순에게, 순이 우에게 선양을 결심할 정도로 현능한 관료[총재]의 존재는 특별했다. 알려진 대로 정조는 관료뿐 아니라 민백성과 함께 조선을 운용하는 '만천명월주인옹'이 되고자 했다. 선왕 정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다산은 현능한 관료의 발굴과 이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考績]를 경세의 방안으로 제안했다. 조선의 대총재를 원했던 '다산의 모책[謨]'이라 할만하다. 역사상 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나라의 존립은 불가했다. 다산은 요순 선정의 열쇠가 '현능의 등용과 그 공적의 효과'임을 강조하고, 조선에서도 인민의 공적을 쌓을 수 있는 현능한 신하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들 현능 가운데 다산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주제어] 堯舜, 三代, 尙書, 考績, 丁若鏞, 共治, 賢能

## 1. 머리말

한 나라가 쇠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산은 역사를 살펴본 결과, 부(富)와 귀(貴)의 재분배가 공정하지 않아 불만에 찬 백성들이 나라와 함께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sup>1)</sup> 다산이 보기에, 조선후기는 부의 분배는 물론이거니와 귀의 재분배 역시 공정하지 않아 전 사회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귀(貴)의 의미'는 다소 복잡적이지만, 당대 군자들이 한가지로 원하는 바였다. 이른바 조정의 수많은 관직에 어질고 능력 있는[현·능] 사람이 등용되어,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고 명예롭게 생각할 때 비로소 정당한 귀의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할만했다. 다산은 관직에 현능한 책임자를 임용해야 안민(安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공정한 관리 임용과 엄격한 고적을 주장했다.

강진 유배 시절, 다산은 조선후기의 관직 세습의 폐단을 둘러싸고 형님과 진지하게 논의한 바 있다.<sup>2)</sup> 정약용과 정약전 두 사람의 서간 교환에서 이견들이 드러나지만 둘이 극구 논의를 합치한 경우가 있었으니 바로 봉건제 비판이었다. 요순시대의 정치와 제도가 아름답지만 봉건제는 예외라는 것이

1) 김호, 「요순 정치의 회복, 다산 정약용의 홍범론」, 『한국학연구』 65, 2022, 306쪽.

2) 김호, 「조선후기 유배인의 서간(書簡) 토론: 다산 정약용과 손암 정약전의 교류를 중심으로」, 『기진문화연구』 41-2, 2020.

다. “삼대의 법 가운데 모든 것이 좋지만 봉건제만은 천리가 아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번 공덕(功德)이 있으면 불초한 자손이 모두 부귀를 누리니, 우리나라의 세벌(世闕)에서 사람을 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sup>3)</sup> 두 형제는 ‘조선의 봉건화 현상’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관직의 세습화로 인해,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들이 임용되고 그 피해로 인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산 개혁론의 다양한 논제 가운데 현능의 선발과 업적 평가[고적]야말로 당시 시급한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 다산은 고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방법론을 활용해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sup>4)</sup> 특히 다산이 평생토록 애를 쓴 『상서고훈』은 성왕들의 선정 비결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 책이었다.<sup>5)</sup> 과연 요순정치의 비결은 무엇인가?

강진 유배 초부터 다산은 현능의 임용과 고적이 요순 선정(善政)의 열쇠라고 형님에게 고백했다. “최근 몇 년 이래 당우(唐虞:요순)의 통치하던 법을 깨달았습니다. 후세와 비교하면 엄혹하고 치밀하여 물 한 방울 새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당시를 두고 순박하고 여유로울 뿐이었는데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가당치도 않은 이해로 어리석은 자(下愚)의 생각일 뿐입니다.”<sup>6)</sup> 다산은 사람들이 ‘무위이치’를 운운하며 요순시대에 천하가 저절로 평화로워졌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어리석은 견해라고 일축했다.

3) 『여유당집』(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11894-v.1-78), 권24, 書牘75.

4)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최근 성과로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제학』,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정일균, 『다산 사서경학 연구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을 소개한다.

5) 필자는 『상서고훈』에 피력된 다산의 개혁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탐구 중이다. ‘정치는 곧 제정’이라는 다산의 흥범 해석을 통해, 인민을 위한 향산의 토대[정전과 부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으며(김호, 앞의 논문, 2022), 본고에서는 향산 즉 안민의 효과는 현능의 등용과 사공의 효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제후[조선의 경우,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들을 ‘망발’했던 성왕의 미덕에 관한 후고를 준비 중이다.

6) 『정본』 4, 191쪽(『다산시문집』 권20「上仲氏」)

『상서』의 이전(二典), 즉 요전(堯典)과 순전(舜典) 그리고 이모(二謨), 즉 대우모(大禹謨)와 고요모(皋陶謨)를 살펴보면, 이른바 순사고언(詢事考言)·삼재고적(三載考績)·부주이언(敷奏以言)·명시이공(明試以功) 등이 시종일관하고 위아래가 연결되니 모두 고적이라는 한 가지 사안입니다. 전(典)이란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요, 모(謨)란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입니다. 법과 계책은 고적이라는 한 가지 일보다 우선할 게 없으니, 이것이 요순 정치가 이룩된 이유입니다.<sup>7)</sup>

요순시대의 정치를 서술한 「요전」과 「순전」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선정을 베풀었던 우와 고요의 지혜가 담긴 「대우모」와 「고요모」를 정확하게 이해한 결과, 다산은 ‘고적’이야말로 요순 선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다산 자신에게 통치의 계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고적’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진언이었다.<sup>8)</sup>

현능의 발굴과 고적의 중요성에 대한 다산의 고민은 유배 이전 시기로 올라간다. 다산이 젊은 시절 서학[西教]에 심취했다가 곤경에 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조는 36세의 다산을 황해도의 지방관으로 옮겨 빗발치는 정치 공세로부터 구해주었다. 당시 황해감사는 이의준이었다. 해주에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간 다산을 이의준은 감영 잔치에 불렀다. 연회에는 도내 사또 십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에는 감사에게 아첨하는 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자, 기생을 찾는 자 등 다양한 행적이 드러났다. 다산은 선화당(宣化堂)에서 지방관을 살펴기보다 사석에서 사또의 고적을 시행하는 편이 정확하다는 의견을 이의준에게 올렸다. 이때에도 다산은 엄격한 고적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sup>9)</sup>

어떻게 하면, 현능을 임용하여 안민(安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강진에 유배된 다산은 이 문제를 보다 깊이 논구했다. 『상서』는 성왕들의 선정을 기록한 전범이었다. 다산이 오랜 독서 끝에 알아 낸 요순의 고적제는 치밀

7) 상동.

8) 다산의 新軍주론은 ‘고적’을 통한 국가 개혁론이라고 단언할만큼 중요한 개념이요, 스러져 가는 조선을 구할 비상약이었다.

9) 『정본』 3, 112쪽(『다산시문집』 권14 「芙蓉堂記」)

하고 엄격했다. ① 내신인 대신(大臣)을 제왕이 ‘직접’ 고적할뿐더러, ② 외신인 목신(牧臣: 지방장관)의 경우 순수하여 ‘직접’ 고적했으며, 혹 ③ 이들을 정기적으로 조회에 참석시킨 후 ‘직접’ 고적했다. 왕이 신하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의 업적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요순의 치법정모(治法政謨)였다. 조선의 경우도, 왕이 관리들을 마주한 채 공적을 아뢰도록 한다면, 지방관들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할 터이고,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이 정도로 도탄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sup>10)</sup>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무능하고 덕없는 이들이 지방관은 물론 각종 관직을 차지하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경세유표』에서 120개로 관직을 한정하고 육조 아래 스물의 관서를 두고 고적을 상세하게 마련해야 요순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이유이다.<sup>11)</sup>

조선후기에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와 일부의 관직 독점이야말로 커다란 사회 문제였다. 수많은 현능한 이들이 관료로 등용되지 못했다. 실망한 이들이 천주교 등 서학에 몰두하여 전통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정조의 지적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다산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에 상관없이 현능을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벽한 곳의 백성들 모두 임금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으니 이들 가운데 현능을 구해야만 했다.<sup>12)</sup>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임무는 더욱 막중했다. 다산은 “수령은 나라에서 백성을 나누어주어 다스리게 한 사람이다. 직책이 임금과 비슷하고 온갖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백성들의 고락(苦樂)이 달려 있고 국가의 성쇠가 달려 있으니, 자세히 상고하고 세밀히 살피어 채찍질하고 장려하여 권선징악해야 한다. 그런데도 고적이 너무 소략하여 여덟 글자만

10) 『정본』 4, 194쪽(『다산시문집』 권20 「上仲氏」)

11) 『경세유표』 「방례초본인」, 다산의 관계개혁 및 지방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강석화, 「정약용의 관계개혁안 연구」, 『한국사론』 21, 1989; 강석화, 「조선후기 지방제도 운영과 정약용의 개혁안」, 『한국학보』 17-4, 1991.

12) 『(정본)여유당전서』 11, 267~269쪽(2:448쪽). 『상서고훈』의 인용문은 실시학사에서 펴낸 번역본을 참고하여 필자가 일부 수정했다. 『(정본)여유당전서』(이하 정본)의 쪽수와 함께, 번역본의 권수와 쪽수를 함께 표기했다(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1-5)』, 학자원, 2020~2022).

으로는 잘하고 못함과 수행되고 폐기된 실상을 낱날이 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sup>13)</sup>

사실 『목민심서』 전체 내용이 지방관의 ‘고적(항목)’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산은 “고려 말에 오사(五事)로 수령들을 고적했고 조선에서 칠사로 늘렸는데, 수령의 해야 할 일의 대강만을 나열했다. 『목민심서』는 앞의 부임과 끝의 해관(解官)을 제외한 나머지 10편에 들어있는 조목만 60조이다. 진실로 어진 수령이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방법이 어둡지 않다.”고 주장했다.<sup>14)</sup>

현능한 자에게 일을 맡긴 다음 반드시 세밀하고도 공평한 업적 평가(고적)가 뒤따라야 했다. 공정한 고적의 효과는 백성을 도탄에서 구할뿐더러, 바닷가의 창생을 포함한 온 나라의 어진 사람들을 앞다투어 모이도록 하는 계책(謨)이었다. 요순의 정치는 고요와 같은 현능의 계책(고요모)을 듣고 이들을 등용하여 업적을 시험한 결과에 다름 아니었다.<sup>15)</sup>

조선후기의 쇠퇴는 한마디로 공정한 선발과 엄밀한 업적 평가의 부재로 부덕하고 능력없는 이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요순 선정의 이상’을 회복하려면 현능의 임용과 공정한 고적이 필수적이었다. 다산은 현능의 임용과 사공에 대한 엄밀한 평가야말로 요순정치의 열쇠임을 주장하기 위해 ‘경전 고증학’을 시도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순의 선정을 기록한 『상서』 고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6)</sup>

다산의 고증학은 지금의 안목으로 과거를 마음대로 해석하지[以今眼 徑定古義] 말라는 것이었다.<sup>17)</sup> 학자가 경전을 풀이할 때, 경의 본뜻을 찾고 난 후 서서히 의리를 강구해야지, 먼저 사전을 세운 채 경문을 끌어들여 자신의

13) 『정본』 2, 149쪽(『다산시문집』 권9 「考績議」)

14) 『정본』 2, 404쪽(『다산시문집』 권12 「牧民心書序」)

15) 김호, 앞의 글, 2022.

16) 다산은 1834년, 『상서고훈』 작업을 마무리한 후, 유배지에서 작성했던 초고를 드디어 교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을 지었다. 그는 고전을 읽다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 고기의 참맛을 본 듯 변송(辨訟)하는데 골몰하여, 어투가 거칠고 공손하지 못했음을 반성했다(『(정본)여유당전서』 11, 28쪽; 1:65~66쪽).

17) 『정본』 12, 204~206쪽(5:54쪽)

뜻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18)</sup> 다산 본인은 감히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뿐이라고 주장했다.<sup>19)</sup>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산의 『상서』 해석은 경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시도한 것이었다. 현실에 관한 그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투영된 산물이었으니, 다산(현재)과 경전(과거)의 대화에 가까웠다.

그동안 다산의 고적론과 현능을 택하는 제왕의 역량을 강조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sup>20)</sup> 본고는 선행 연구의 관점을 이어받으면서도 기왕의 논고에서 강조되지 않은 점들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고전의 재발명’으로서의 다산의 방법론이다. 다산은 고증학을 통해 요순정치의 핵심이 현능의 사공(업적)과 고적임을 증명해 냈다. 특히 정현이나 매색 등 여러 주석가들의 해설과쟁투 하면서, 다산은 경학과 경세학을 변증법적으로 통일시켰다.<sup>21)</sup> 다산에게 경학과 경세학은 둘이면서 하나였다. 그의 경학(고증학)은 과거를 현재에 살려내는 활학(活學)이라는 점에서 경세학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학문은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현실에 살아있는 실학이었다.

## 2. 『상서』에 드러난 요순의 선정

다산에게 『상서』의 「요전」과 「순전」 그리고 「고요모」와 「우공」편은 요순 선정의 핵심이었다. 과연 요와 순이 어떻게 현능인 고요 그리고 우를 등용하고

18) 『정본』 12, 207쪽(5:60쪽) “儒者解經 當先求經旨 徐講義理 不宜先立私意 牽經以就已也”

19) 『정본』 11, 282쪽(3:17쪽) “本爲存古 非敢以釋經爲意也”

20) 일찍이 김문식은 『경세유표』 개혁안의 핵심을 ‘지인과 안민’으로 적시한 바 있다(김문식, 앞의 책, 2021, 407~438쪽). 관련하여 다산의 주장이 고적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에 있었다는 주장(백민정, 『정약용의公私 관념과 정치 공공성의 문제』, 『민족문화연구』 97, 2022)이나 다산의 흥벌론이 결국 지인과 안민을 위한 고적이었다는 논설(김호, 앞의 글, 2022)을 참고할만하다. 이외 구체적으로 지방관의 고적을 목민심서를 독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읽어낸 연구(홍해뜸, 「다산 정약용의 수령 정치론 - 『牧民心書』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3, 2022) 및 감사론을 고적의 관점에서 정리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임성수, 「다산 정약용의 감사론(監司論)」, 『민족문화연구』 68, 2015).

21) 다산의 엄정한 태도는 채침의 『서집전』을 두고 『사기』를 충분히 읽지 않은 채 주석을 달았다고 비판하거나, 매색의 경우 성인을 모욕하는 조야한 해설을 남발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정치했는지 파악하려면, 이들 ‘전(典)과 모(謨)’를 깊이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다산이 말년에 이르도록 『상서』 고증을 시도했던 이유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그리고 『흠흠신서』의 정확적 그리고 역사적 기초를 다시 한번 확정하기 위함이었다. 다산에게 1표 2서는 마음대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경전을 깊이 탐구한 결과 얻어진 ‘역사적 사실’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과정은 『상서』에 대한 다산 특유의 해석과 ‘전통의 발명’을 동반했다.

거듭 말하지만, 현능에게 사업을 맡겨 그 성과와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요순의 지인(知人) 능력과 고적제의 운용이야말로 성왕 정치의 핵심이었다. 선정의 내용은 『상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우공」편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절세의 문장이었다.<sup>22)</sup> 다산이 꼽은 「우공」편의 핵심 구절은 순과 우, 고요 그리고 기 등의 신하들이 자신의 업적을 왕 앞에서 아뢰는 장면이다. 우와 고요, 기 등은 누가 뭐래도 원훈대신들이었다. 이미 공로가 많은 이들이 다시 무슨 업적을 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요순의 치세에는 공신과 대신들도 예외없이 자신의 치적을 직접 보고했다.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공적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산은 “요가 순에게 선위하려고 하면서 ‘순사고언 내 언지가적(詢事考言 乃言底可績)’이라고 하였으니, 지가적(底可績)이란 이미 공을 이루고나서 고적하는 말이지 장차 사업을 이룰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순·우·고요·기의 이날 모임은 보통의 한가한 자리가 아니고, 바로 원훈대신들에 대해 9년 만에 세번째 고적을 하는 대조회(大朝會)였다.”라고 확인했다.<sup>23)</sup>

다산은 순과 우, 고요와 기가 모두 모여 각자 치적을 보고하고 상호 평가했던 대조회를 요순 선정의 최고 장면으로 꼽았다. 요순 정치의 열쇠는 상하를 막론하고 관리는 누구라도 예외없이 임금 앞에서 자신의 공적을 진술하고, 이를 두고 상과 벌을 논의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적이 이루어진 데 있었다.

22) 『정본』 11, 309쪽(3:113쪽)

23) 『정본』 11, 254~256쪽(2:410쪽)

다산은 ‘순사고언(詢事考言)’을 신하들의 상호 평가로 고증했다. “순사고언은 직접 제(帝)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고적하는데, 우가 고요의 업적을 평가하고 고요가 우의 업적을 평가한 것이다.”<sup>24)</sup> 사실 고요와 우, 두 사람은 작위가 가장 높고 덕망이 가장 융성한 신료들이었다. 우(伯禹)가 9년 동안 치수의 공을 이룬 뒤 조정에 들어와 업적을 보고하는 날, 고요 또한 자신의 업적을 아뢰었다. 당일 고요는 업적을 보고하기 앞서 계책(고요모)을 진술했다. 때문에 편명이 「고요모」가 된 것이다. 고요의 대책은 임금의 덕을 보좌하고 세교(世教)를 수립할 뿐더러 백성에게 큰 혜택을 줄 만한 것이었기에, 우는 고요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다른 업적이 필요없다. [不須他績]’라고 칭송했다는 것이다.<sup>25)</sup>

과연 다른 업적이 필요없을 정도로 뛰어난 고요의 계책이란 무엇인가? 다산은 고요의 핵심 주장이 현능한 이를 등용하고 그의 업적을 공정히 평가하는 고적에 다름 아니었다고 고증했다. 앞으로 살펴볼 다산의 현능론은 고요의 계책을 이어받은 ‘다산모(茶山謀)’라 할만하다. 다산은 스스로를 고요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개혁론을 진언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다산의 인재론을 살피기에 앞서, 다산이 고요모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산이 보기에 그동안 「고요모」의 해석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다. 고요의 계책(고요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요순정치의 핵심에 다가서는 지름길이었는 데도 말이다. 다산이 파악한 고요의 주장은 “임금이 명덕을 닦고, 구족(九族)을 도탑게 하는 모범을 보이면, 현능한 이들이 앞다투어 계책을 내놓아 천자를 보필하려 들 터이니, 그렇게 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쉽다.”는 것이었다. 선정은 왕이 술선하여 명덕을 닦고 이를 기초로 왕의 친인척(구족)과 백관들을 예우하면 현능한 자들이 앞다투어 왕을 돕고자 나설 것이요, 그 결과 선정이 이루어질 터였다. 『상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24) 상동.

25) 『정본』 11, 255쪽(2:411쪽)

고요가 말했다. “진실로 자신의 덕을 실행하면[允迪厥德] 모책을 내는 신하들이 밝아지고 보필하는 신하들이 화목할 것입니다[謨明弼諧].” 우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요가 말했다. “삼가 자신을 닦고[慎厥身修], 생각을 원대하게 하고[思永], 구족을 도탑고 질서 있게 하고[惇敘九族], 여러 현명한 이들이 힘써 돕게 해야 합니다[庶明].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나가는 것은 왕에게 달렸습니다.” 우가 고요의 말에 절하며 말했다. “옳습니다.”<sup>26)</sup>

다산은 이 구절을 고증하면서, 「고요모」의 주장이 『대학』과 『중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서』 「고요모」는 사실상 선유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바였다. 이를 선학인 주희(朱熹)가 근본을 밝혔고 이제 다산 자신이 보다 철저하게 본의를 설명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었다. 공맹의 학문이 주희를 거쳐 정약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도통(道統) 의식으로, 조금 길지만 이 구절에 대한 다산의 해설(論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윤적궐덕(允迪厥德)의 의미다. 다산은 이를 『대학』의 ‘명명덕(明明德)’으로, 치자인 왕의 수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음 모명궐해(謨明弼諧)이다. 다산은 ‘은 백성이 어진 마음을 일으키는 것[一國興仁]’으로 풀이했다. 임금의 정치를 보좌하는 현능한 이들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풀어보면 임금이 자신의 덕을 먼저 닦으면, 현능한 이들이 왕의 정치를 도우려고 앞다투어 몰려든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고요모의 핵심 내용이었다.

고요는 왕의 ‘신궐신수(慎厥身修)’를 주장했다. 즉 임금이 뜻을 진실하게 하여 수양한다는 의미로 『대학』의 신독(慎獨)이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감으로써 그 마음[뜻]을 진실하게 한다는 것이다[慎獨以誠意]. 다음 ‘사영(思永)’은 왕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닦는 것, 즉 수신이야말로 치국평천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렇기에 원대한 생각[사영]이 된다. 이어서 고요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했다. 먼저 ‘돈서구족(惇敘九族)’이다. 왕은 숭선하여 자신의 집안을 효(孝)·제(弟)·자(慈)의 덕목으로 바로잡

26) 『정본』 11, 243쪽(2:374~376쪽)

아야 한다. 위로 부조(父祖)에게 효도하고 옆으로 형제와 화목하며 아래로 자손에게 자애로우면, 반드시 구족이 돈독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뜻이다. 왕이 위에서 솔선하여 구족의 화목을 도모하면, 관리들이 이를 배워 저절로 밝아질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이 모두 밝아진다는 주장이었다. ‘서명(庶明)’은 밝은 백관들을 의미하니, 곧 현능한 신하들의 모택이 훌륭하고 이를 토대로 왕의 정치를 이룬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 위에서 운용하듯 쉽다는 뜻이었다.<sup>27)</sup>

고요의 계책[고요도]은 한마디로 지도자[왕]가 솔선하여 명덕을 닦고 구족의 화목을 도모[齊家]할 때 이를 본받아 백관들이 현명해질 터이고, 현능한 이들이 왕과 더불어 정치에 참여한다면 선정은 여반장(如反掌)이라는 주장이었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안민이라면, 안민을 위한 현능의 선발[知人]이 시급했다. 그런데 현능을 등용하려면 무엇보다 왕의 수신이 선행되어야 했다. 지도자가 먼저 명명덕을 통해 지인의 현명함을 갖추고, 이후 현능한 관리의 선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능한 관리들이 조정과 지방에 가득하여 좋은 계책을 내놓고 왕과 함께 선정을 이룰 터이고, 그 결과 안민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였다. 곧 『대학』의 가르침인 수신제가 이후 치국평천하였다. ‘귀의 공정한 분배’ 즉 현능의 등용을 통해 선정의 조건을 마련한 후 인민들의 부유해지려는 욕망을 채울 수 있었다. 국가는 세금을 줄이고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면 그만이었다. 이렇게 부와 귀의 재분배가 완성되었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고 가까운 이를 가까이하는 것은 관리를 임명하는 덕이 아닌가? 즐겁게 해줌을 즐거워하고 이롭게 해줌을 이롭게 여기는 것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덕이 아닌가?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大經大法)은 이 두 가지 뿐이다. 이것이 『대학』의 결론이다.<sup>28)</sup>

27) 『정본』 11, 243쪽(2:376쪽)

28) 『정본』 11, 246쪽(2:382쪽)

다산에게 수신제가 이후 치국평천하의 도리를 강조한 『대학』은 선정을 향한 지도자의 교과서이지 서민들의 수양서가 아니었다. 지도자[왕]는 수신을 통해 현능을 등용하고 군신공치의 결과 안민을 추구할 따름이다. 이로써 군자는 귀의 공정한 분배에 만족할 터이고 소인들은 부유함을 즐거워할 바였다. 부와 귀에 대한 인민의 욕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선정을 이룰 수 없을뿐더러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웠다.

원래 생민에게 욕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큰 욕망은 두 가지다, 첫째 부(富)이고 둘째 귀(貴)이다. 군자의 부류는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귀이다. 소인의 부류는 왕의 들판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이다. 관리를 임명할 때 합당하지 않으면 원망과 비방이 귀족에게 일어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두루 미치지 못하면 원망과 비방이 소민에게 일어난다. 부와 귀 모두 나라를 망치는데 충분하다. 국가의 치란과 흥망의 원인, 그리고 민심의 향배와 거취를 묵묵히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sup>29)</sup>

### 3. 구덕(九德), 현능의 조건

조선의 흥망성쇠 역시 부와 귀의 공평한 분배에 달려 있었다. 무엇보다 현능한 관리를 적임에 선발하고, 이들의 계책[謨]에 따라 안민의 업적[소민의富]을 이루어야 했다. 과연 어떤 이가 현능인가?

다산의 현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적[결과]을 이루어 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현능의 자질 가운데 구덕(九德)의 유무가 중요했다.<sup>30)</sup> 고요가 칭송해 마지 않은 길사(吉士)가 그러하다. 우가 현능의 조건을 묻자 고요가 이에 답했다. “너그럽되 엄격하며, 부드럽되 죽대가 있으며, 소박·

29) 『정본』 11, 246쪽(2:382쪽)

30) 『정본』 11, 247쪽(2:384쪽)

성실하되 공손하며, 잘 다스리되 공경하며, 유순하되 굳세며, 반듯하되 온화하며, 간략하되 절도가 있으며, 강하되 내실이 있으며, 용감하되 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덕성을 몸에 간직하여 항상 지속할 수 있는 인물이라야 길사, 즉 현능이었다.<sup>31)</sup> 한마디로 길사는 중용의 상징과도 같았다. 중화(中和)로 덕을 길러야 구덕을 기를 수 있었다.<sup>32)</sup>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 가지에만 특출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태도를 줄곧 유지할 수 있는[中和祗庸] 사람이라야 구덕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능의 필수조건인 중용의 미덕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산은 이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산의 경세학을 사공주의나 능력주의로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단 구덕의 조화가 우선이다. 능력[역]에 앞서 현[덕]이 중요했다. 가령, 직이온(直而濫), 관이울(寬而栗)의 덕목을 보자. 다산은 마옉의 해석을 취해, 정직하되 기색이 온화하고, 관대하되 공경하며 삼가고 두려워하는 태도[正直而色溫和 寬大而敬謹戰栗也]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다음 설명을 추가했다. 정직과 질박이 지나치면 오만해질 수 있기에 공손이 필요하며, 다스리는 자가 지나치게 익숙하면 일을 대할 때 삼가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관이울]가 있다는 것이다. 길사는 강직(直)하되 온화하며, 익숙한 일에도 늘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처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구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

다음 유이립(柔而立)의 덕목을 보자. 다산은 부드럽지만 굼대가 있어야 중용의 미덕을 갖추었다고 인정했다. 반대로 간략[대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을 가볍게 넘어가려다가 문제가 발생한다[간이렴(簡而廉)]. 따라서 간략하되 제약과 절도가 필요했다. 다산은 겉으로 강한 것은 속이 강한 것만 못하다고 보았다. 강하지만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강이새(剛而塞)]. 중화의 미덕은 강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럽지만 무르지 않아야 했다. 중화의 미덕은 강하고 용감하기만해서는 안되고 항상 의리(義)

31) 『정본』 11, 247쪽(2:388쪽)

32) 『정본』 11, 230쪽(2:337쪽)

에 부합해야 한다[강이의(疆而義)]. 현능이란 구덕의 중도를 지켜 모자라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것이었다.<sup>33)</sup> 요순과 같은 성왕이 그랬고, 후대의 왕들도 선정을 베풀려면 구덕을 갖춘 현능이 필요했다.<sup>34)</sup>

다산은 관리를 임용할 때 반드시 구덕으로 선발하고, 이미 선발했다면 구덕의 증용을 오래 유지하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의 치적은 구덕을 갖춘 현능에게 직임을 맡겨서 사공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었다. 왕은 현능을 골라 임무를 맡긴 후에는 그 성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왕이 중간에 한마디 말이나 행동으로 현능의 사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현능한 관리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성과를 기다리는 것이 통치자의 미덕이었다.<sup>35)</sup>

왕은 무조건 군림하지 않으며 신하 역시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다. 다산에게 진정한 군신공치는 각각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때 가능했다.

적임자(현능)를 얻어 맡기고 나면 왕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군도(君道)의 본연이다. 성왕은 위임하여 공을 세우도록 책임 지우고 팔짱 낀 채 성공을 기다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린 소견으로 그 사이에서 견제하고 교란하면 삼사의 신하들은 장차 사체(四體)를 펼 수 없게 된다.<sup>36)</sup>

「고요모」의 마지막을 보면, 성왕은 현명한 신하에게 일을 맡기고 자갈하게 만기친람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요체를 잃을 뿐이라는 것이 고요의 진언[謨]이었다.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 또한 현능하여 모든 일이 편안히 이루어 질 것이요, 임금이 지나치게 자갈하여 요체가 없으면 신하는 태만해 만사가 무너질 것이었다. 순임금은 고요의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심지어 고요의 말이 끝나자, 순은 존경의 절[拜]을 했을 정도였다.<sup>37)</sup>

33) 『정본』 11, 247쪽(2:388쪽)

34) 『정본』 12, 277쪽(5:288쪽)

35) 『정본』 12, 279쪽(5:291~292쪽)

36) 『정본』 12, 276쪽(5:281쪽)

37) 『정본』 11, 279쪽(2:482쪽)

다산은 해석[鑄案]을 통해, 순에게 고요는 사부도 아니요, 중신도 아닌 단순한 신하에 불과했지만, 고요의 말이 훌륭하자 절하면서 받아들이고 제왕의 존엄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대의 성왕들은 현능한 신하를 각듯이 대접했다. 제왕이 겸손하게 신하에게 도움을 구하는 태도는 진시황 이후 그만 사라졌다. 진나라 이후의 역사를 보면 군주만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것을 치세의 방책으로 여길 따름이었다. 이를 두고 다산은 군왕의 지위[君道]는 날로 높아졌지만 신하[士趨]는 날로 낮아져 요·순·우와 같은 성왕의 정치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탄했다.<sup>38)</sup>

문제는 구덕을 갖춘 이들을 등용하는 방법이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선은 봉건의 세습제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했다. 시험으로 구덕의 유무[현능]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했다. 다산이 보기에 당시 조선의 과거는 현능을 선발하는 방법과 거리가 멀었다.

애석하다. 시(詩), 부(賦), 논(論), 책(策), 의(疑), 의(義), 표(表), 전(箋)이 지금 시험과목이라는 것인데, 인심을 파괴하는 것이 불교나 황로보다 심하고, 세도를 어지럽히는 것이 신불해·한비자보다 심하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르치고 형이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부질없이 익히면서 온 천하의 영준한 인재들이 모두 그 속에서 스러져 가며 속을 썩이고 총명을 고갈시킨다. 만일의 요행을 바라지만 결국 실의에 빠져 함께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아무도 후회하지 않으니 슬프지 않은가?<sup>39)</sup>

다산은 시·부·논·책의 제술이 아니라 『중용』의 본의를 제대로 갖춘 현능을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0)</sup> 구덕이야말로 『중용』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다.

38) 『정본』 11, 279쪽(2:483쪽)

39) 『정본』 12, 268쪽(5:257쪽)

40) 『정본』 12, 266쪽(5:252쪽) 다산 인재론의 핵심으로, 목민관이야말로 '땃땃한 덕[尚德]'의 소유자라야 가능했다.

고요가 만든 법에는 재주와 문장[才諳·文學]은 시험과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구덕을 평가하는 법을 만들어, 구덕을 모두 갖춘 이는 상등, 구덕 중 여섯 가지를 갖춘 이는 중등, 구덕 중 세 가지를 갖춘 이는 하등으로 구분하여 방군(邦君: 제후)으로 삼고 대부로 삼았다. 구덕을 갖추지 못했지만 한가지 기예나 재주가 있는 사람은 낮은 관직에 제수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덕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位]에 오르고, 재능있는 사람은 직책을 맡는다[賢者在位 能者在職]”는 것이다. 이것이 우·하·은·주의 인재 선발의 대법(大法)이다.<sup>41)</sup>

다산은 조선의 과거 시험을 폐지하고 구덕을 중심으로 임용하자고 제안했다. 많은 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비웃었다. 다산은 구덕 중심의 선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덕을 중심으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고 바른 사람과 바르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면 밝은 거울을 걸어놓은 듯 선악을 환히 비추고 저울로 균형을 맞추듯 경중을 구별하여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sup>42)</sup>

구덕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중용 공부를 통해 구덕을 성취한 자들이라야 비로소 선발에 응할 수 있었다. 요순 이래 태학(太學)에서 중용의 구덕을 가르쳤던 이유이다.<sup>43)</sup> 『대학』과 『중용』은 치자(治者)를 위한 태학의 교과서였다.

이것이 우·하·은·주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었고, 또한 우·하·은·주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이었다. 이외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겉으로만 공손한 자[謀面者]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여 덕이 일정치 않다. 거짓없이 진실한 사람[枕恂者]은 덕업(德業)을 이루려는 신념을 바꾸지 않으므로 덕이 일정하다. ‘상(常)’, 한 글자는 진(眞)과 위(僞)를 구별하고 현(賢)과 사(邪)를 변별하는 요결이다.<sup>44)</sup>

41) 『정본』 12, 267쪽(5:258-259쪽)

42) 『정본』 12, 270쪽(5:260쪽)

43) 『정본』 12, 269쪽(5:260쪽)

44) 『정본』 12, 279쪽(5:292쪽)

다산은 ‘덕의 지속성[常]’을 강조했다. 한 번은 구덕의 중용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진정한 학자와 가짜를 구별하고, 현능한 관리와 그렇지 않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덕성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상서』의 「입정(立政)」편은 요순 치세의 인재 선발의 유법(遺法)이었으니, 중용의 핵심인 중·화·지·용으로 교육하고 구덕의 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입정」편의 문구가 예스럽고 오묘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sup>45)</sup>

고요가 펼친 중용의 학설은 주공에게 전해졌다. 주공은 「입정」의 경계를 지어 “하나라 때 경대부의 가문이 강성해졌는데도 오히려 현준(賢俊)을 불러서 함께 상제를 높이 모시고, 제(帝)가 행한 바를 따라 그 사람이 구덕을 행하는 데 진실하여 거짓이 없음을 알았다.”고 하여 현준을 임명하는 법을 두루 논하고, 마지막에 “오직 구덕을 변치 않고 지키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고 했다. 중용의 학설은 공자에게 전해졌다. 공자는 그 근본을 소급하여 “요가 순에게 진실로 중용을 지키라고 했다. [堯曰 咨爾舜 允執其中]”고 했고, 또 “순 또한 우에게 그렇게 명했다.”고 서술했다. 이 학설은 다시 자사(子思)에게 전해져 『중용』을 지었으니 근원이 멀다.<sup>46)</sup>

중용의 가르침은 고요의 계책[고요모]에서 시작하여 주공의 「입정」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공자와 자사를 거쳐 조선[의 다산]으로 계승되었다. 한마디로 다산의 고증으로 경전의 본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 4. 고적(考績), 요순 정치의 열쇠

요순 치세의 열쇠는 현능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직임을 맡긴 후 고적을 통해 천하를 잘 다스린데 있었다. 요임금은 인재 선발에 앞서 자신의 덕을 밝

45) 『정본』 12, 269쪽(5:293쪽)

46) 『정본』 11, 249쪽(2:391쪽)

히고 구족(九族)의 화목을 이루었다.<sup>47)</sup> 나아가 귀족(사대부) 가운데 현능을 뽑아 조정에 앉히고, 또 사방을 순행하면서 제후들의 치적을 고적했다. 그 결과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제후들이 없어서 천하가 평안해졌다.<sup>48)</sup> 태평천하, 즉 협화만방은 이른바 제후국들의 치적을 엄밀하게 고적하고 상벌한 결과였다.

물론 제후의 고적에 앞서 명덕[峻德]을 밝히는 황제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이 ‘명명덕’으로 시작한 이유이다. 치자인 왕이 숭선하여 효·제·자를 실천하고, 친히 왕실을 정돈한 후라야 현능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산은 ‘백성소명’을 일반 서민들이 밝아진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조정이 밝아진 것으로 새롭게 고증했다.

준덕(俊德)은 효·제·자의 큰 덕이다. 명준덕(明俊德)은 명명덕이다. 구족기목(九族既睦)은 이 덕으로 집안을 정돈하여 집안이 정돈된 것이다. 백성소명(百姓昭明)은 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라가 다스려진 것이다. 만방(萬邦)과 오변(於變)은 이 덕으로 천하를 평안하게 하여 천하가 평안해진 것이다.<sup>49)</sup>

요임금의 가장 큰 미덕은 염제(炎帝)와 황제(黃帝) 이래로 무력에 익숙한 제후들이 서로 침탈하는 상황을 큰 덕으로 협화(協和)한 데 있었다. 이후 요임금이 사방을 한 번씩 순행하여 제후의 공적을 고적하니, 감히 버티며 교화를 따르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평천하가 이루어진 셈이다.<sup>50)</sup> 명명덕으로부터 평천하에 이르는 치자의 도리는 『대학』에 뚜렷했으나,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필부의 일상이 아니라 정치가의 도달처였다.

다산은 요임금의 선정을 기술한 『상서』 「요전(堯典)」의 핵심 주제야말로 ‘요임금이 백규(百揆)의 재목을 등용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해석했다. 백규

47) 『정본』 11, 126쪽(2:33쪽)

48) 『정본』 11, 129쪽(2:38쪽)

49) 『정본』 11, 125쪽(2:28쪽)

50) 『정본』 11, 129쪽(2:38쪽)

란 무엇인가? 다산은 백공(百工)을 헤아리는 지위로 풀이했다. 즉 백관이 자신의 실적을 보고하면 이를 고과하는 총재(冢宰)이다. 요임금은 현능한 순을 백규의 자리[총재]에 앉혀 백관의 업적을 고적할 계획이었다.<sup>51)</sup>

요는 순을 얻지 못함을 근심하여 먼저 백관을 잘 다스릴 재목을 구했다. 진실로 이 한 사람을 얻는다면 모든 일이 이루어져 요는 장차 임금의 자리에서 자신을 잘 단속하지만 하면 될 것이다. 성인은 지혜가 깊고 계획이 분명했다. 마음을 다해 구한 것은 오직 한 사람[총재에 오를 현능]이었다.<sup>52)</sup>

요임금의 입장에서 순을 등용하기만 한다면,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선정을 이를 터였다. 요는 순의 현능을 알아보고 일반적인 신하의 선발이 아닌, 자신의 지위를 선양할만한 인물로 간주했다. 이에 요는 천자의 지위를 맡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걸맞은 재목을 천거하도록 했고, 두루 임무를 맡겨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sup>53)</sup> 요에게 순과 같은 현능한 신하가 절실했고 순에게 백규를 맡기니 나라는 물론 사방이 화평해졌다. 현능의 효과는 단번에 나타났다.<sup>54)</sup> 3년간 순의 치적을 본 요임금은 순에게 자신의 자리를 선양했다.<sup>55)</sup> 3년 만에 황제의 지위를 넘겨받았으니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순임금의 업적 가운데 도량형의 정비는 특기할만했다. ‘선기옥형’에 대한 다산의 해석은 그야말로 창의적이며 독보적이다. 다산은 선기옥형을 천문 관측 기구로 보았던 기왕의 해석을 비판하고, 자와 저울 즉 도량형으로 새롭게 고증했다.<sup>56)</sup>

51) 『정본』 11, 149쪽(2:96쪽)

52) 『정본』 11, 150쪽(2:101쪽)

53) 『정본』 11, 159쪽(2:130쪽)

54) 『정본』 11, 158쪽(2:126쪽)

55) 『정본』 11, 163쪽(2:139쪽)

56) 김호, 앞의 글, 2022, 309쪽

순이 요에게 선위받고 처음으로 시행한 대정이 도량형에 관한 것이었으니 어찌 의심하는가? (중략) 일용하는 물건의 조절을 이것이 아니면 고르게 할 수 없으니 천하에 이보다 큰일이 있겠는가? 도량형이 정밀하면 천하가 다스러지고 도량형이 정밀하지 않으면 간교한 속임수와 분쟁이 일어난다. 주자가 ‘황종(黃鐘)이 만사의 근본이다.’라고 한 이유다. 순이 처음 정사를 펼치면서 응당 먼저 기[자]와 형[저울]을 살피지 않았겠는가?<sup>57)</sup>

순사고언(詢事考言)이란 말로 보고하고 공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매번 사업마다 우선 계획에 해당하다는 모책[謨]을 묻고 직책에 임명한 후에는 공적을 평가하여 계획대로 실행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고적의 대법으로 요는 순을 그렇게 시험했다. 다산은 요순의 치세에는 ‘계획[謨]’도 없고 결과에 대한 ‘평가[고적]’도 없이 사람을 등용하는 법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sup>58)</sup>

순은 제후들의 업적을 살피기 위해 순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다산은 “당·우[요순]의 정치는 고적일 뿐이다. 백관에 대한 고적은 모두 경사에서 하지만 제후의 공적은 반드시 방악(方嶽)에서 고찰했다. 제후의 경내에 들어가 풍속을 관찰하고 전야를 살피고 구혁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를 점검한 뒤에 비로소 공적을 평가했다. 옛날 순수의 제도를 순공(巡功)이라 한 이유였다.”<sup>59)</sup> 순은 내직의 관료들을 직접 고적했을 뿐더러 외직[제후]의 공적을 순행하여 평가했다. 순의 선정은 경사에서 이루어진 백관에 대한 고적과 사방을 순행하면서 제후의 사업을 확인한 결과였다. 이것이 요순 선정의 공통된 법이었다.<sup>60)</sup>

황제는 제후들의 정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주례』에서 방백(方伯)의 나라를 감독하도록 한 이유이다. 만일 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었다. “제후가 자신의 나라에서 멋대로 전횡하는데 잘

57) 『정본』 11, 167쪽(2:168쪽)

58) 『정본』 11, 163쪽(2:141쪽)

59) 『정본』 11, 179쪽(2:187쪽)

60) 『정본』 11, 179쪽(2:188쪽)

못을 바로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 이에 천자의 조정에서 대부를 파견했고, 태재(太宰)가 사람을 차출했다.”<sup>61)</sup> 『상서』 「요전」에는 사방을 순행한 순의 행적이 자세하다.<sup>62)</sup> 순은 평생의 치적이 훌륭할뿐더러 제후들의 업적을 살피느라 전국을 순행하는 데도 온 힘을 다했다. 결국 제위 50년 만에 그는 남방을 순행하다가 죽고 말았다.<sup>63)</sup> 순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유위(有爲)의 지도자였다.<sup>64)</sup> 가령 “순임금은 5년에 한번 순행하고 제후는 매년 조회하는데 제후가 조회할 때 자신의 치적을 말로 보고하면 왕이 순행할 때 실적을 분명히 시험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으면 수레와 복식으로 표창했다.”<sup>65)</sup> 다산은 고적의 엄밀함으로 인해 제후들이 정치에 몰두하고 그 결과 안민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았다.<sup>66)</sup>

고적의 정례화뿐 아니라 고적의 과정과 내용 역시 주밀했다. 다산의 고증에 의하면, 제후는 임금의 면전에서 자신의 업적을 보고했다[敷奏以言]. 글로 대신하거나 다른 이로 대체할 수 없었다. 다산은 제후가 공적을 보고하면 임금[천자]은 듣고 사신(史臣)은 이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제후의 업적 보고를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가 해당 지역을 순행할 때 비로소 제후의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고적의 항목 또한 구체적이었다. 전야의 개간이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지, 구둑(溝瀆)의 정비와 교화 그리고 환과고둑을 돌보는 일이 보고서와 합치하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이후 제후의 보고 내용과 실질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황제는 수레와 복식으로 이들의 공로를 표창했다. 반대로 거짓말로 업적을 부풀리거나 허위인 경우 봉지(封地)를 깎고 작위를 강등했다. ‘명시이공(明試以功)’이 분명했다.

61) 『정본』 11, 88쪽(1:257쪽)

62) 『정본』 11, 190쪽(2:213쪽)

63) 조선의 경우 제후에 해당하는 자들이 방백이었다. 이들을 ‘감사’로 부르는 이유는 군현 지방관들의 관리 감독이 이들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감사들 역시 제대로 감독되지 않는 현실이었다.

64) 『정본』 11, 241쪽(2:368쪽)

65) 『정본』 11, 191쪽(2:217-218쪽)

66) 『정본』 11, 192쪽(2:220쪽)

요순의 고적과 이에 따른 상과 벌은 왕도(王道) 정치의 생생한 증거들이었다.<sup>67)</sup> 요임금은 순과 곧에게 동시에 치수 사업을 맡겼다. 순은 3년 만에 치적을 이룬 반면, 곧은 제대로 사업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9년 만에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죽었다. 다산은 “곧과 순은 같은 시기에 등용되었는데, 순은 3년 만에 공을 이루었고 다음 해에 요(堯)의 일을 대리했다. 반면에 곧은 6년 동안 두 번 고적을 받고 9년 만에 파출되었으니, 바로 순의 섭정이 6~7년 되는 무렵이었다. 곧이 치수에 실패하고 우가 아직 순을 이어 사흥(嗣興)하기 전, 10여 년 동안 순은 하천 준설의 공사를 맡았고 곧은 그동안 유배되었다가 사망했다.”고 해석했다.<sup>68)</sup>

치수 사업에 실패한 곧은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사망했고, 치수에 성공한 순은 요임금의 지위를 물려받아 10년간 치수를 관장하다가 우에게 선양했다는 것이 다산의 고증이였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기왕의 주석들, 특히 한비자의 해석 때문이었다. 한비자는 치수 사업에 성공한 순에게 요가 천하를 선양하자 곧이 이를 막았고, 결국 요가 군사를 동원하여 곧을 우산(羽山)의 교외에서 주살했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천하에 감히 사업의 공로와 상벌을 둘러싸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해석했다. 한비자는 요를 무자비한 폭군으로 묘사했으며, 치수 사업과 공로에 대한 상벌을 오직 패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다산은 역사 속의 잘못된 이해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순과 곧에 대한 고적과 상벌은 오직 왕도에 따른 처분의 결과였다. 요임금을, 신하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살하거나 성공했다고 왕위를 물려주는 패도의 사공에 물든 정치가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다산은 좌시하지 않았다.<sup>69)</sup>

67) 『정본』 11, 197~200쪽(2:235~241)

68) 『정본』 11, 207쪽(2:265쪽)

69) 다산은 한비자를 야인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을뿐더러 사마천의 해석 역시 조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주희의 학문을 이어받은 채침 역시 고중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모든 고적을 정밀하게 고증하려던 다산의 태도는 고증을 위한 고증이러기보다 성왕의 정치가 왕도에 기초한 사실을 논증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고적(古籍)이라고 해서 깊이 믿을 수는 없다. 주(紂)가 이미 스스로 불타 죽었으니, 이미 천하를 위하여 포악한 자를 제거한 셈이다. 그런데 무왕이 무엇 때문에 애써 주(紂)가 죽은 곳으로 직접 가서 짐을 빼어 노려보면서 이미 죽은 사람의 머리를 베어 태백기에 걸고서야 통쾌하게 여겼겠는가? 항우도 진영에게 시행하지 않은 일이고, 유충도 서진의 민제에게 차마 하지 않은 일인데, 무왕이 이런 일을 했겠는가? 모두 야인(野人)들이 전한 저속한

## 5. 왕도의 사공, 순과 우의 치수 사업

다산은 왕도의 사공을 고증하는데 정성을 쏟았다. 순과 우의 치수 사업은 현능의 임용으로 안민(安民)의 결과를 이루어낸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의 치수 사업은 순의 준천을 이어받았지만, 왕도의 사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결정체이기도 했다.

다산은 『상서』 「우공」편을 절세의 명문으로 평가했다.<sup>70)</sup> 요의 명을 받은 순이 치수 사업을 맡은 지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고, 공로를 인정받아 섭정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반대로 곤은 치수의 성과를 이루지 못해 유배형에 처해졌다. 곤의 실패와 순의 성공은 범람하는 황하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었다. 황하의 범람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곤은 강을 막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집했다. 반면에 순은 물길을 터주는 준천(濬川)을 통해 황하의 범람을 해결했다. 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순의 지혜 덕분이었다. 다산은 “순의 준천은 구주(九州) 내에서 시행되었다. 황하의 범람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었는데, 곤은 고집이 세고 포악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홍수를 막고 백천을 막아 일을 그르쳤다. 하지만 순은 하천을 파서 소통시켰다.”고 평가했다.<sup>71)</sup>

현능한 순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순은 황하를 시작으로 강수(江水), 회수(淮水), 제수(濟水) 등 여러 하천을 차례로 준설했다. 하류를 뚫어 강물을 소통시키자 논밭의 물길이 소통되어 농업이 발전했다. 10여 년 사이에 순의 준설로 농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순의 준설 사업은 홀로 이룬 것이 아니었다. 직과 익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이어졌으며, 섭정 20년이 되었을 때 우에게 맡겨 공을 마무리했던 것이다. 우는 순의 사업을 이어

말인데, 공안국과 사마천의 무리가 경사(經史)에 수록하여 만세를 현혹했으니 믿을 바가 못된다.”고 비판했다(『정본』 11, 79~80쪽(1:230~231쪽); 『정본』 11, 209쪽(2:270쪽)).

70) 조선에서 「우공치수」는 이미 성왕들의 선정(善政)의 모범으로 이해되고 있었다(강경현, 「조선시대 경연에서 『서경』 「우공」편 강독의 의미」, 『공자학』 48, 2022). 다산이 이를 ‘고적’과 관련시켜 해석한 점에서 특별하다.

71) 『정본』 11, 195쪽(2:231쪽)

받아 9년 만에 업적을 이루고, 자신의 공적을 순의 앞에서 진언했다. 그 생생한 역사 기록이 「우공」편이었다. 다산은 「우공」편의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우가) 9년 만에 공을 이루었다. 그 성공을 고하는 주문(奏文)이 책에 실려 있는데 사람들이 살피지 않았을 뿐이다. 공적을 고하는 (우의) 주문에 ‘큰물이 하늘까지 뻗어서 넘실거리며 산을 에워싸고 언덕으로 솟구쳐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네 가지 탈것을 타고 산을 따라가며 나무를 베고, 익과 함께 갓 잡은 짐승을 백성에게 가져다 먹였습니다. 또 제가 9주의 하천을 터서 사해로 보내고 밭도랑 사이에 크고 작은 수로를 파서 하천으로 보냈으며, 직과 함께 오곡을 파종하여 굶지 않도록 식량과 잡은 짐승을 가져다 먹게 하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역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밥을 먹고 만방이 다스려졌습니다.<sup>72)</sup>

순과 우가 하천을 준설하고 물길을 제어하여 전지(田地)를 다스리고, 익과 직은 이를 도왔다. 인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자 굶주리지 않았고 천하가 평안했다. 다산은 순과 우의 준설은 명의(名醫)가 등창을 치료할 때 먼저 침을 놓아 고름을 터뜨리는 비책에 비유할 만하다고 찬양했다.<sup>73)</sup> 한마디로 「우공」편의 ‘큰물이 하늘까지 뻗어서[洪水滔天]’ 이하 63자는 현능의 임용[知人]이 가져온 안민(安民)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9년 동안 우의 치수 사업은 3년에 한 번씩 세 번의 고적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다산은 「우공」의 담회지적(覃懷底績), 화이지적(和夷底績), 원습지적(原隰底績)을 9년간 세 번 고적을 한 증거라고 해석했다.<sup>74)</sup> 다산의 독창적인 고증은 ‘지적(底績)’을 치수 사업에 대한 고적으로 해석해 낸 점이다. 1차 고적이 담회 고적이었다. 호구(壺口)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양산을 다스리고 기산에 미쳤으며, 태원을 정리한 다음 악양에 이르렀다. 그리고

72) 『정본』 11, 196쪽(2:233쪽)

73) 『정본』 11, 283쪽(3:26쪽) “如良醫治癰 一鍼而潰其膿也”

74) 『정본』 11, 317쪽(3:133쪽)

치수 사업이 담회에 이르렀을 때 1차 고적을 한 것이다.<sup>75)</sup> 2차는 화이에서의 고적,<sup>76)</sup> 그리고 3차 고적인 원습(原隰)의 고적이다.<sup>77)</sup> 다산은 담회와 화이를 지명으로 논증했지만, 원습은 지명이 아닌 준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고증했다. 다산은 「우공」편을 체국경야(體國經野)의 선정을 기록한 절세의 문장이라고 추켜세웠다.

「우공」은 절세의 문장이다. (중략) 홍수가 산을 에워싸고 언덕으로 솟구치는 재해는 하수의 근심일 뿐이다. 강수·회수 등의 여러 강물이 어찌 동시에 넘쳤겠는가? 곧과 우가 다스린 것은 모두 하수[황하]의 근심이었다. 하수를 다스린 후 우는 익·직과 함께 회(澮)와 천(川)을 준설하는 일을 맡아서, 드디어 천하의 전계(田界)를 바로잡았다. 넓고 비옥 한 땅은 모두 정(井)자 모양으로 구획하고, 주변의 자투리땅도 모두 방위를 분별하여 바르게 하고, 남북의 두령을 곧게 하고 남쪽과 동쪽으로 이랑을 만들었다. 『주례』의 이른바 체국경야를 말한다.<sup>78)</sup>

정전(井田)은 중국은 물론 조선에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제도였다. 우의 치수는 정전을 가능케 한 체국경야 사업이었다. 순에서 시작한 황하의 치수는 우에게 이어져 2단계, 3단계의 사업과 이에 대한 고적을 통해 천하를 안정시키고 인민들을 평안케 한 결과를 이루었다. 순과 우의 치수는 단지 하천을 정비하고 토지의 경계를 정한데 그치지 않았다. 도리어 평천하의 기초라 할만한 성과였다.

오랫동안 중국은 변방의 오랑캐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들을 정벌하여 멀리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위무할 것인가? 위무한다면, 그 방법은 또 무엇인가? 다산은 우의 치수 결과 서방의 오랑캐인 서융이 순순히 내복(來伏)했다고 강조했다. 기왕의 해석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 조선의 학자들이 참고했던 채침(蔡沈)의 『서집전(書集傳)』은 “삼묘를 귀양 보낸 것은

75) 『정본』 11, 238쪽(2:359쪽)

76) 『정본』 11, 317쪽(3:132쪽)

77) 『정본』 11, 283쪽(3:31쪽)

78) 『정본』 11, 312쪽(3:113~114쪽)

홍수를 다스리기 전이었는데, 이 때에 삼위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삼묘에서 공(功)이 크게 퍼졌다.”고 해석했다. 무언가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다산은 서역에 거주하던 삼묘의 백성들이 옮겨 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신에 치수 및 토지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항산의 토대를 제공하자, 서역의 오랑캐들이 스스로 귀부해 왔고 이들을 편호하여 백성으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오랑캐에게 살만한 여건을 제공한 일이야말로 패도의 정벌이 아닌 왕도의 사공이었다. 다산이 「우공」편을 절세의 명문으로 칭송한 이유였다.<sup>79)</sup> 고전을 해석하는 다산의 창견(創見)이 빛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서역은 요의 봉토 가운데 가장 먼 지역이었다. 「우공」편의 마지막을 보면, 서쪽은 모래로 뒤덮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사막[流沙]은 이른바 내복(內服)의 지역이 아니었다.<sup>80)</sup> 다산은 청대 지방지 『신강기략(新疆紀略)』을 참고하여 가옥관(嘉峪關) 바깥의 사막 지대[流沙]를 서용의 거주지로 고증했다. 이 지역의 모래 벌판은 크면 4, 5백리에 이어졌으며, 바람으로 퇴적된 모래가 구렁이 되거나 깊은 구덩이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다산은 우의 자취가 서역의 모래사막에 이르렀으니, 구주를 준설했던 순의 업적에 비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고 칭송했다.<sup>81)</sup>

순이 요의 명을 받들어 황하 주변의 준설과 치수에 힘써 인민을 위한 항산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순의 명을 받든 우의 사업은 그 규모가 더욱 방대했다. 내지에 머물지 않고 서역의 사막 지역까지 치수를 완료하여, 서방의 오랑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오랑캐마저 저절로 내부한 것이다. 다산은 “서번(西藩)의 여러 강족(羌族)이 중화(中華)에 신하로 복종한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순과 우는 이들을 위력으로 굴복시키지 않

79) 다산은 요순시대의 지경이 서역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우가 관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치수에 전력하여 서역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다산은 요순 치세야말로 진정한 ‘광역의 지경’이었다고 평가하고, 18세기 후반 청나라도 정벌이 아닌 요순의 인정으로 지경을 확장하기를 희망했다. 물론 다산은 ‘우의 진정한 공로는 산천을 다스린 데 있지 땅을 넓힌 데 있지 않다[禹之功 在平治山川 不在拓境廣土]’고 못박았다(『정본』 11, 351쪽(3:241쪽)).

80) 『정본』 11, 350쪽(3:238쪽)

81) 『정본』 11, 322쪽(3:150쪽)

았다[非舜禹之所威服也].”<sup>82)</sup>고 칭송했다. 인민들이 먹고 살만한 기반이 완성되자 평천하는 저절로 이루어졌다.<sup>83)</sup> 요순의 업적은 패도의 위력이 아닌 왕도의 결과였다.

한편, 요순 치수 사업의 결과가 특별했던 이유는 전법(田法)과 부법(賦法)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sup>84)</sup> 다산이 체국경야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순과 우의 치수는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인민의 삶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 재정의 기초를 만든 대사업이었다. 과연 이렇게 엄청난 사업이 성사된 비결은 무엇일까? 다산은 우선 구습을 개혁하려는 성왕의 의지 그리고 순과 우 그리고 직 등 현능을 인선하여 정치를 맡긴 일, 마지막으로 개혁을 앞세우되 덕과 은혜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현능의 공덕을 꼽았다.

- 1) 당시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왕기(王畿) 천리 밖은 모두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하수 범람의 근심이 미치는 곳은 아니었고 원시의 황무지는 개척되지 않았다. 각국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각자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전의 하던 일을 답습하며 안일에 젖어 각자 옛것만을 지켰다. 요순 두 성인이 법을 새로 제정하여 구주를 한 집안으로 합치고 만 가지로 다른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려고, 기우뚱한 것을 구획하여 반듯하게 하고, 분잡한 것을 척결하여 공평하게 만들며, 들판을 정리하여 정전(井田)으로 만들고, 집들을 묶어 마을을 이룰 것을 계획했다.
- 2) 이에 우와 직 등 몇 사람에게 명하여 토지 사이의 크고 작은 물길을 준설하여 하천으로 통하게 했다. 냇물의 제방이 터져서 범람하는 곳은 물을 흘려보내고 제방을 쌓아 막으며, 못물을 막은 둑이 터져서 잠긴 곳은 물을 소통시키고 둑을 쌓아 막았다. 땅의 성질이 비옥한지 척박한지를 살펴서 토지의 등급

82) 『정본』 11, 323쪽(3:151쪽)

83) 『정본』 11, 330쪽(3:172쪽)

84) 『정본』 11, 339쪽(3:204쪽) 다산은 전법의 경우 토질을 따지지 않고 수확의 9분의 1만 징수하므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부법은 토질의 좋고 나쁨, 인구의 다과, 물산의 여부, 재화의 양, 당해 농사의 풍흉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조금만 어긋나도 백성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았다. 다산이 『경세유표』에서 부법(賦法)을 신중하게 서술한 이유이다.

을 바르게 하고, 백성과 물산이 많은지 적은지를 조사하여 부(賦)의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 3) 각국에는 각각 선대의 임금들이 남긴 법과 본토의 풍속이 남아 있어,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그중에 반드시 개혁하기 지극히 어려운 폐단과 타파하기 어려운 선례들이 있어서 많은 이들 개혁의 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중략) 대사업을 하는데 어찌 저항이 없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가 큰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임금의 명을 공경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덕과 은혜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제후와 백성들이 흔쾌히 명을 받들고 왕명에 거역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sup>85)</sup>

다산은 체국경야의 대개혁[토지 및 부세제도의 개혁]은 구습에 젖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오직 상제에 부합하는 덕과 인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은혜를 우선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능한 왕과 그에 걸맞는 신하의 공치(共治)로 가능한 일이었다.

## 6. 조선의 구폐(舊弊)

과연 조선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 자의 땅도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한 명의 백성도 왕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지만, 현마다 거두는 조례가 다르고 주마다 거두는 비율이 달랐다. 그런데도 낡은 버릇을 답습하고 안일만을 쫓아 누구도 바로잡지 않고, 분잡하고 어지러운 것을 누구도 다스리지 않은 채, 오직 바쳐야 하는 재물만을 날마다 채축하고 달마다 독축하여 끝없는 향락의 비용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수수방관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를 요순시절 무위지치의 유행이라 하니 어찌

85) 『정본』 11, 340쪽(3:210쪽)

그럴 수 있는가?<sup>86)</sup>” 조선의 무사안일을 비판하고, 개혁에 동참할 현능을 찾아 정치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유위의 개혁이 절실했다. 다산은 “개벽 이래 요순만큼 사공을 세차게 일으킨 사람이 없었다. 천상(天象)을 관찰하여 농사철을 살피고, 현능을 뽑아 관직에 임명하여 수해를 다스리게 하고, 5년에 한 번 순수하고 매년 조회를 받아 모책을 듣고 그 말을 실행했는지 공적을 살폈다[고적]. 이에 더해 산을 뚫어 물길을 트고, 도랑을 열어 물을 소통시키고, 교화를 세우고 형벌을 분명히 했으며, 예를 제정하고 음악을 만들며, 흉악한 이들을 주벌하고 간사한 자들을 물리쳤다. 초목·조수·어벌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람을 선택하여 임무를 맡기고 성공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칭송했다.<sup>87)</sup> 그런데도 후세에 이를 잘못 알고, 병든 자를 치료하려 들면 망령되다 비판하고, 서까래를 보수하자면 일벌이기가 좋아한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요순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선정을 이루었을까? 혹 요순 선정의 열쇠를 안다 해도, 역대의 왕들은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지레 겁먹고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sup>88)</sup> 다산은 요순시절은 다시없을 것이라는 당시의 패배 의식을 비판했다. 다산은 역사 속 인물을 재평가함으로써 반박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진(秦)나라의 목공(穆公)이었다. 기왕의 논의에 따르자면, 진목공은 패도를 일삼은 어리석은 왕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산은 목공을 난세의 지도자로 새롭게 평가했다. 목공이야말로 인재를 알아본 군주라는 해석이다. “한 나라가 위험에 빠지거나, 혹은 번성하여 안정되느냐는 모두 한 사람(군주)의 공로이다.”<sup>89)</sup>라는 『상서』 「진서(秦誓)」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산은 진목공을 오패 중 지인(知人)에 가장 능한 군주로 자리매김했다.

86) 『정본』 11, 341쪽(3:211쪽)

87) 『정본』 11, 217쪽(2:294쪽)

88) 김호, 앞의 글, 2022 참조.

89) 『정본』 12, 349쪽(5:535쪽)

사람을 밝게 알아보고 관리를 밝게 등용하는 면에서는 오패 중에 진목공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 우에서 백리해를 얻었고, 송에서 건숙을 데려왔으며, 용에서 유여를 뽑았고, 진에서 비표와 공손지를 찾아냈다. 소원한 사람을 발탁하여 깊이 믿고 의탁한 덕분에 마침내 패업을 이루어 중원의 회합을 이루는 데로 나아갔다. 이에 『상서』에 기록되고 『대학』에 인용되었다.<sup>90)</sup>

다산은 목공을 호걸스러운 군주이자 명철한 자질을 가졌다고 칭송했다. 목공의 미덕은 지역과 가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능을 발탁한데 있었다. 그는 패전으로 군대를 잃자, 비통한 마음을 참고 후일을 도모했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아랫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다산은 목공이 영명한 군주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논평했다. 물론 노성(老成)한 원로들의 말을 어기고 감언이설을 좇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다가 장래의 해악을 보지 못한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기본적으로 목공은 현능을 알아보고 이들을 신뢰하여 정사(政事)를 맡긴 훌륭한 군주였다.<sup>91)</sup>

다산은 조선의 군주들이 목공 이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조선후기의 난세를 극복할 군주가 명심할 바는 한마디로 현능을 등용[知人]하고 그들을 신뢰하여 정사를 맡기되 반드시 엄밀하게 고적하는 일이었다. 목공마저 해낸 일이 아니던가?

다산이 보기에 요순 선정의 핵심은 다음을 넘지 않았다. 첫째 현자가 나아올 길을 넓히는 일이요[廣賢路], 둘째 백성의 고충을 살피는 것이며[察民隱], 셋째 언로를 여는 것이었다[開言路].<sup>92)</sup> 무엇보다 현능의 선발을 넓히는 일이 중요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임금은 왕위에 오르자 현능을 널리 구했고, 많은 이들이 우를 추천했다. 이에 순은 우를 백규의 자리에 임명했다. 다산은 백규의 지위를 대총재(大冢宰)로 정의했다. 다산은 백규를 백관의 하나로 오해했던 기왕의 해석을 비판하고, 순임금이 우를 관료를 총

90) 『정본』 12, 349쪽(5:536~537쪽)

91) 『정본』 12, 350쪽(5:538~539쪽)

92) 『정본』 11, 214쪽(2:286쪽)

맡히는 총재의 자리에 임명했다고 해석했다. 우는 단순한 신료가 아니라 이들을 아우르는 대총재였다. 조선에서도 왕을 대리할 만한 현능한 대총재[재상]가 필요했다.<sup>93)</sup> 진정한 군신공치의 기획이 아닐 수 없다.

백규란 주(周)의 대총재와 같은 관직으로서 모든 관료를 통솔하고 모든 일을 헤아려서, 8법(八法)으로 관부를 다스리고, 8병(八柄)으로 군신을 부리며, 8통(八統)으로 만민을 부린다. 어진 이를 높이고, 유능한 사람을 부리며, 작위를 올려주고, 관직을 주는 것이 모두 태재(太宰)의 임무이다. 이에 반드시 채택하는 방법에 밝고 편당의 사심을 끊어버려야 비로소 무리의 마음을 따르게 할 수 있으니, 순임금이 찾는바 이런 사람이었다[帝所求者此人也].<sup>94)</sup>

조선에도 봉당을 초월하여 사심없이 현능을 골라 쓰고, 관부를 다스리며, 여러 신료들의 상벌을 주관하여, 만민에게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총재[재상]가 필요했다. 요순의 선정은 현능을 골라 총재의 지위[位]에 앉히고, 나아가 각자 특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 직책[職]을 부여했기에 가능했다. 가령 만물의 속성을 밝히고 기물을 만들어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일에는, 물리에 밝고 수리(數理)에 통달하며 곡직과 방면과 형세를 자세히 살펴서 백공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sup>95)</sup> 우는 치수와 치산(治山)에 능한 이들을 골라 사업을 벌였으니, 바로 익과 직이었다. 우는 이들의 재능이 초목과 조수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천거할 수 있었다.<sup>96)</sup>

고대의 성왕들은 지역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책임자를 골라 자리를 주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순임금은 스물 두명의 관리를 선발하여 각자의 직임을 나누어 주고 이들의 사업을 고적했을 따름이다. 요순시절

93) 현능의 후보에 다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다산의 정계 복귀에 대한 꿈은 유배시절은 물론 말년까지도 꺾이지 않았다.

94) 『정본』 11, 216쪽(2:291~293쪽)

95) 『정본』 11, 226쪽(2:323쪽)

96) 『정본』 11, 227쪽(2:328쪽)

에도 세족의 후예들이 대거 등용되었지만, 이들 역시 태학에서 『대학』과 『중용』을 익힌 후 현능을 증명해야 선발될 수 있었다. 단지 귀족들과 세족의 후예만을 임용했다면, 애초에 선정은 불가능했다.

당시[요순치세]에도 사람을 등용할 때 대체로 세족을 등용하였다. 직과 설은 제족의 아들이고 요의 아우이며, 괘원과 팔개는 모두 황제의 후예였다. 22인 가운데 누가 혁혁한 집안 출신이 아니겠는가마는 태학에서 이들을 잘 가르친 다음에 비로소 조정에서 선발하여 임용했기에 모든 일이 넓혀져 천하가 태평했다.<sup>97)</sup>

문제는 조선이었다. 조선이 융성하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공경대신과 관각(館閣)의 근신 중에 변경 지역의 출신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자 등용하는 인제는 서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널리 인재를 구하고 그들에게 안민의 업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sup>98)</sup> 이미 언급했듯이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현능의 선발과 고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옥당(玉堂)에서 올린 고적의 내용을 보면, 다산은 국가의 안위가 인민의 삶에 달려 있고, 인민의 삶은 수령의 사업에 달려 있으며, 수령의 업적은 감사의 포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민의 삶은 감사의 철저한 고적 여부에 달려 있었다. 조선후기의 고적제는 소루하고 적실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산은 요순의 고적을 헤아려 당시 지방관들의 무능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99)</sup>

요순 치세에는 원훈대신마저 고적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대신과 상경(上卿)들은 이미 학문이 뛰어나고 공적도 충분하여 임금은 단지 믿고 예우하면 그만이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3년마다 고적하고 세 번의 평가를 토대로 내치거나 승진하는 절차를 두었다.<sup>100)</sup> 그러나 조선에서는 제대로 된 고적제가 부재한 동시에 고관들은 평가 대상에서 모두 빠져나가기 일

97) 『정본』 11, 267쪽(2:448쪽)

98) 『정본』 11, 269쪽(2:449쪽)

99) 『정본』 2, 187~193쪽

100) 『정본』 11, 236쪽(2:356쪽)

쭈였다. 그저 미관(微官)과 소리(小吏) 등 직급이 낮고 불쌍한 사람만을 잡아서 고하의 등급을 매길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대관(大官)은 그만두더라도, 경관(京官) 중에 3품 이상으로서 하대부라고 일컫는 자들마저 고적을 하지 않는다. 또 외관 중에 관찰사·절도사 같은 자들을 고적하는 법이 없어 마음대로 탐학하고 절도 없이 문란한 짓을 하는데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마침내 모든 법도가 무너지고 만백성이 고통 속에서 뒹구는데도 구제할 약이 없고 시행할 법이 없으니, 요순의 제도에 비해 허술하지 않은가? 삼공은 오랫동안 존중받아 왔으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더라도 6경 이하는 그래서 안 된다.<sup>101)</sup>

다산은 조선이 요순의 선정을 희망한다면, 매해 관료들의 업적을 엄밀하게 고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고적은 직접 보고하거나 평가하지 않아, 후속 조치인 상벌 또한 공정하지 않았다.<sup>102)</sup> 다산이 『경세유표』에서 고적제를 강조했던 배경을 알만하다. 다산은 경관과 외관들의 경우, 연말에 공적을 보고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입춘에 반포하도록 했다. 삼공과 삼고(三孤)가 공적을 아뢰면 중추부가 고찰하고, 의정부 낭관의 공적은 삼공이 직접 살피도록 했다. 중추부의 영사와 관사의 공적은 의정부에서 고찰하는 등 상호 고적의 기틀을 제안했다. 또한 육조의 대부, 삼영문(三營門)의 대장, 한성부관윤과 각사 제조 가운데 상대부는 의정부에서 고적하도록 했다. 다산은 고관대작은 물론 잡직에 이르는 모든 관리들에 대한 고적의 틀을 제시했다. 관상감이나 삼의사, 사역원 그리고 액정서의 악공같은 기술직의 경우도 평가를 강화했다.

다산은 외관(감사)의 고적은 절차와 조목을 더욱 엄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와 중추부가 합좌하여 이들의 업적을 살피는데 감사야말로 인민을 직접 다스리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위가 인심의

101) 『정본』 11, 236쪽(2:356~357쪽)

102) 『정본』 11, 193쪽(2:223쪽)

향배에 달렸고, 인심의 향배는 백성의 휴척에 달렸으며, 백성의 휴척은 수령의 현부에 달렸으므로, 각 고을 수령에 대한 포폄 역시 너무 중요했다.<sup>103)</sup> 다산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수령의 임무와 고적의 조건을 『목민심서』에 자세하게 기술한 바 있다. 수령칠사에 비해 72조에 달하는 다산의 고과 항목은 매우 엄격하고 조밀했다. 『목민심서』 전체가 현능한 관리의 고적을 위한 평가표라 할만하다. 무엇보다 다산은 ‘현능’의 전제조건으로 ‘율기(律己)’를 강조했다. 중화의 구덕을 갖춘 후라야 이호예병형공의 업무를 왕도의 사공으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04)</sup> 조선후기에 지방은 쇠락하고 있었고, 이는 지방관, 특히 감사(監司) — 다산은 이들을 제후의 지위에 비유했다 — 에 대한 엄밀한 고적을 통해서만 회복 가능했다. 다산은 요순의 고적이 ‘치밀하고 매섭다[嚴密峻烈]’고 칭송하고, 『목민심서』의 고적을 꼼꼼하게 만들었다.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와 같은 다산의 경세학 저술들은 경전에 대한 고증학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sup>105)</sup>

한편, 다산은 고적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려면 장기간의 임용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옛사람은 사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공은 오래 맡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순과 우에게 9년의 기회를 준 요와 순을 본받을 필요가 있었다. 조선에서는 자주 옮기는 것만을 이롭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 점이 사업의 허와 실을 나누는 경계였다.<sup>106)</sup> 조선의 수령은 너무 자주 갈리는 바람에 오랜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대신으로 수령이 된 자는 1년만 지나면 내직으로 옮기는 것이 상례였다. 때문에 관리가 된 자가 장구한 생각과 계획이 없이 오직 백성을 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사익을 챙길 뿐이었다.<sup>107)</sup>

103) 이상은 『경세유표』 「考績之法」의 내용이다(『정본』 24, 265~296쪽).

104) 다산은 수령칠사의 업적을 넘어,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덕성을 강조했다(『牧民心書序』, 『정본』 2, 404쪽).

105) 다산은 젊은 시절, 매씨의 위작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時未辨梅書之僞]을 고백한 바 있다. 상서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불충분했기에 증용 및 대학의 정치철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말년에 이르러 다산은 경학과 경세학의 통일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中庸講義補』 권1 「天命之謂性節」, 『정본』 6, 285쪽).

106) 『정본』 11, 240쪽(2:362쪽)

107) 『정본』 29, 337쪽.

요컨대, 다산은 조선의 구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현능한 총재를 임명하고 총재는 적재적소에 배치된 인재들과 함께 안민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능한 관리들에게 공적을 이룰만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철저한 고적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만 했다. 고적의 상벌을 통해, 현능은 계속하여 사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안민’의 꿈 또한 그리 멀지 않았다.

## 7.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다산은 『상서』 고증을 통해 요순 정치의 비결을 현능의 발굴과 엄격한 고적제의 운용 효과로 파악했다. 『상서』에 기록된 요순의 치적은 현능에게 정치를 맡겨,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킨 공로에 다름 아니었다. 『상서』에는 성왕들의 지인(知人)과 안민(安民)의 치적이 생생했으니, 요순은 무위이치의 상징이 아니라 총재 이하 현능한 관료들과 함께 정전제와 부세제의 토대를 마련했던 유위의 정치가였다.

다산의 정전 고증은 이들 성왕의 정치를 조선에 재현하려는 의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다산은 왕도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왕의 업적을 패도를 일삼는 사공주의로 평가한 주석들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다산이 보기에, 요순은 천하를 공공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선정을 펼친 분들이었다. “선위(禪位)를 받은 자는 천하를 공물(公物)로 보고, 세습받은 자는 천하를 자기 집안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 예가 서로 같지 않다.”<sup>108)</sup>고 강조한 다산은 조선의 왕을 비롯해 세족[喬木大臣]들이 사(私)천하가 아닌 공(公)천하 의식에 투철하기를 바랐다. 세도가의 전횡을 목도했던 다산의 일갈이었다. 현능의 발굴은 세족의 자제들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다.

108) 『정본』 11, 212쪽(2:281쪽)

순에게 올린 우의 진언은 그래서 아름다웠다.

우가 큰 소리로 “순임금께서는 중천에 뜬 태양처럼 비추시어 어떤 사물이든 살피지 않는 것이 없고 아무리 멀어도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저 바닷가 모퉁이에까지 퍼져 있는 많은 백성과 빼어난 수많은 백성들이 누군들 임금의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어질고 준수한 인재를 널리 찾고 뽑아서 등용하는 것은 오직 임금의 생각대로 할 뿐입니다. (중략) 오직 귀족의 자제와 세족만을 장려하고 등용한다면 필시 편당을 지어 부화뇌동하며 날마다 거짓된 공을 아필 것입니다.”<sup>109)</sup>

다산은 누구보다 조선의 왕이 현능하여 그 덕이 상제와 짝할 정도로 진실하고, 왕의 덕업과 공로가 백성들에게 베풀어지기를 희망했다.<sup>110)</sup> 정조는 선왕[영조]의 삼년상을 마치자, 국정 계획[大誥]을 발표했다. 조목은 먼저 민산(民産)을 일으키고, 현능을 발굴하며,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인재 발굴은 더욱 중요했다. 정조는 조선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현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강조했다. 현능한 자들이 등용되지 못했다는 한탄이 없었으니 이러한 기풍을 회복한다면 조선의 부흥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sup>111)</sup>

정조 스스로 무위이치를 강조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저절로 얻어지지 않았다. 정조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유위(有爲)’를 실천한 지도자였다.<sup>112)</sup> 심지어 신료들에게 총람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정조는 삼공육경 이하 백관들 모두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왕과 함께 백관 이하 모두 자신의 업무[사공]에 충실하다면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은 당연했다.

정조는 수십 년 국정 운영의 결과 스스로 선정의 이치를 발견했다고 주장

109) 『정본』 11, 268쪽(2:449쪽)

110) 『정본』 11, 214쪽(2:283쪽) “以德以功 德配上帝 功被下民”

111) 『정조실록』 1778년(정조2) 윤6월 13일.

112) 김호, 위의 책, 2020, 135쪽.

한 바 있다.<sup>113)</sup> 모든 사람이 만인만색의 특징을 지녔다고 전제한 정조는 만인을 각자의 특징에 맞추어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으로 쓰일 재목은 기둥으로 사용할뿐더러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여 그 천태만상을 각자의 특징에 맞추어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는 농사에 밝지만, 아무개는 기술이 뛰어나다. 또 아무개는 장사에 골몰하지만 누구는 독서인에 가깝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따라 일하도록 하고, 현능을 골라 관직을 맡기고 더 많은 업적을 기다리면 그만이었다.

다산의 현능론은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을 위한 ‘다산의 계획[謨]’이었다. 정조는 조선후기의 쇠락을 개혁하여 요순의 정치를 구현하려 했고, 정조의 뜻에 따라 다산은 현능[대총재]과 함께하는 군신공치의 국정 방안을 구상했다. 다산 스스로 총재의 마음으로 조선의 현실을 깊이 관찰하고, 동시에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조선을 구해낼 해법을 제안했던 것이다.

역사상 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는 필멸했다. 조선이 처한 상황은 급박했다. 다산은 요순 선정의 열쇠를 ‘현능의 발굴과 사업의 효과’에서 찾고, 현능을 적임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토록 한다면 백성들이 안민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능으로 발탁되어 요순의 선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했던 그의 꿈은 말년에 이르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俟菴], 현능 정치에 대한 다산의 모색은 수백년 후 한국에서 새롭게 타오르고 있다.

113) 『홍재전서』 권10 「萬川明月主人翁自序」

## ■ 참고문헌

- 강경현, 「조선시대 경연에서 『서경』 「우공」 편 강독의 의미」, 『공자학』 48, 2022.
- 강석화, 「정약용의 관제개혁안 연구」, 『한국사론』 21, 1989.
- \_\_\_\_\_, 「조선후기 지방제도 운영과 정약용의 개혁안」, 『한국학보』 17-4, 1991.
-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제학』,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 김 호, 『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2020.
- \_\_\_\_\_, 「조선후기 유배인의 서간(書簡) 토론: 다산 정약용과 손암 정약전의 교류를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 41-2, 2020.
- \_\_\_\_\_, 「요순 정치의 회복, 다산 정약용의 흥범론」, 『한국학연구』 65, 2022.
- 백민정, 「정약용의公私 관념과 정치 공공성의 문제」, 『민족문화연구』 97, 2022.
- 임성수, 「다산 정약용의 감사론(監司論)」, 『민족문화연구』 68, 2015.
-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1-5)』, 학자원, 2020~2022.
- 정일균, 『다산 사서경학 연구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홍해뜸, 「다산 정약용의 수령정치론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3, 2022.

# Jeong Yak-yong's Re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History(尙書) and His Vision for Joseon's Governance

Rediscovering Yao and Shun's Principles for Joseon

KIM HO\*

The Book of History(尙書) was a scripture that documented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in the era of Yao and Shun. Towards the end of his life, Jeong Yak-yong sought to uncover the principles of effective governance through a new interpretation of the Shangshu. He believed that the empirical study of historical facts was crucial to reforming the corrupt state of Joseon. Through his extensive study of the Shangshu, Jeong Yak-yong deduced that the successful policies of Yao and Shun were the result of appointing wise officials to govern the state and achieving the enrichment of the people, especially when capable and virtuous officials were given the opportunity and authority to excel and were meticulously evaluated for their achievements. Jeong Yak-yong argued that kings like Yao and Shun not only had the ability to recognise wise and virtuous individuals, but also the ability to respect and support them in their endeavours. The system of rewards and punishments, especially as a result of rigorous performance evaluations, was essential to maintaining meritocracy among bureaucrats. The achievements of wise and capable officials naturally led to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welfare. Jeong Yak-yong envisioned a Joseon that required cooperation between the monarch and his wise and capable subjects, particularly through the appointment of a wide range of competent officials regardless of status or region, along with the central role of the

---

\* SNUAC

governor(chancellor), who supervised and controlled numerous officials. King Jeong-jo aspired to be a “king like the moonlight on a thousand rivers”, ruling the nation in harmony with the people, not just the bureaucrats. To realise the king’s vision, Jeong Yak-yong proposed the identification of competent bureaucrat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as a means of rejuvenating Joseon. This was Jeong Yak-yong’s “grand plan[謀]” for national reconstruction. He stressed that the exemplary governance of the Yao and Shun era was the result of appointing wise bureaucrats and recognising their achievements. He hoped that such capable individuals w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regardless of their status or political affiliation. In particular, Jeong Yak-yong considered himself to be one of these capable bureaucrats.

**Key words:** The Book of History, the successful policies of Yao and Shun, Jeong Yak-yong, wise and virtuous individuals, co-governance, meritocracy